

Dubai유, 2006년 평균 55달러

KDI, 국제유가 전망 상향조정 ... 고유가 지속되면 67.5달러까지

국제 석유시장 분석기관들이 2006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2월 발표한 수정전망에서 두바이(Dubai)유를 기준으로 2006년 국제유가 평균가격 전망치를 2005년 12월 전망 때의 배럴당 52.3달러에서 배럴당 55달러로 3달러 가까이 높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57.3달러, 2/4분기 53.7달러, 3/4분기 56.3달러, 4/4분기 52.8달러 등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CERA는 국제유가 시장이 고유가 시나리오로 귀결되면 2006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7.5달러까지 치솟고, 반대로 저유가 가정이 현실화하면 배럴당 47.2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2월 WTI(서부텍사스 중질유)를 기준으로 2006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종전 배럴당 63.3달러에서 65달러로 2달러 가까이 높여 잡았다.

또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GES) 역시 비슷한 시기에 Brent유를 기준으로 2006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종전의 배럴당 52.4달러에서 57.9달러로 상향조정했다.

KDI는 “2006년 연간 국내 경제 성장률을 5.3%로 전망하면서 국제 분석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을 수용해 2006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을 배럴당 55달러를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국제 분석기관들은 대체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 있지만 원유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어 유가 상승세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49.5달러였으며 2006년 1-3월에는 배럴당 58달러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19>